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5: 성경이 갑자기 떠오름

『신앙감정론』 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다섯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16~220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판단의 양쪽을 다 막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오르며 생긴 감정이라고 해서 가짜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진짜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 “갑자기, 내가 기억할 수도 없던 약속이, 연달아 떠올라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확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말씀은 완전하니 말씀과 함께 온 체험도 옳다”는 혼동 때문입니다. 에드워즈는 이 혼동을 '말씀과 일치하는 체험'과 '말씀이 떠오른 체험'의 구별로 풉니다. 이어서 사단도 성경을 떠올리게 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광야 시험, 거짓 교사, 사람 마음의 부패로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신 감정이라 해도 구원하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고 하며, 돌밭 비유로 마무리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5(소극): 성경 구절이 유난히 떠오르며 생긴 감정이라는 사실은, 그 감정이 은혜로운지 아닌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구절이 '어떻게' 떠올랐느냐(갑자기, 놀랍게, 연달아)는 출처를 가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사람의 부패한 마음도 같은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참되냐는 떠오른 방식이 아니라, 감정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 자체에 뿌리내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절별 정리

📜 1. 양쪽 다 판단 근거가 아니다

에드워즈는 표지를 세우자마자 두 방향의 성급한 판단을 모두 막습니다. 한쪽은 “성경 구절이 떠올라 생긴 감정이니 오히려 수상하다”는 의심입니다. 에드워즈는 이것도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감정이 서 있는 토대가 '갑작스럽고 특이한 떠오름'이 아니라 성경 자체, 곧 그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라면 그 감정은 얼마든지 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은 “말씀이 갑자기, 놀랍게 떠오르면서 생긴 감정이니 은혜다”라는 판단입니다. 감정의 종류가 두려움이든 소망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는 말씀이 '떠올랐느냐'가 아니라 감정이 '무엇에 근거했느냐'입니다.

1.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은 가짜의 증거가 아니다
2. 진짜의 증거도 아니다
3. 감정의 종류(기쁨·두려움 등)와도 무관하다
4. 기준은 '떠오른 방식'이 아니라 '진리 자체'
5. 감정의 토대를 물어야 한다

> **베드로후서 3:16**
> (뒤 절에서 인용) 말씀 자체는 선해도 쓰는 방식에 따라 멸망에 이를 수 있음 — 떠오른 '방식'과 말씀 '자체'의 구별을 미리 보여 줌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마태복음 13:20-21**
> (끝 절에서 인용) 말씀으로 기쁨이 생겨도 뿌리가 없을 수 있음 — 기쁨이라는 종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절에서 에드워즈는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위 두 구절은 같은 장의 뒷부분에서 그가 드는 근거입니다.

📜 2.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 그들이 내세우는 체험

에드워즈는 이런 체험을 근거로 확신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달콤한 약속이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떠올랐다. 그 구절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인 줄도 몰랐고, 읽은 기억도 없다. 한 구절 뒤에 또 한 구절이 이어졌다. 너무 적절하고 달콤해서 서서 울었다. 기쁨이 충만해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 특히 소망이나 기쁨처럼 즐거운 감정일 때 사람들은 이것을 더 확실한 증거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왔다"는 사실을 자기 상태가 건전하다는 보증으로 삼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확신이 근거 없는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갑작스럽고 연속적인 약속의 떠오름이 구원의 은혜를 증명한다는 법칙이, 신앙의 가장 높고 유일한 규범인 성경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1. 갑자기·기억 못 하던·연속으로 떠올랐다는 간증
2. 즐거운 감정일수록 더 확실하다고 여김
3. 에드워즈: 근거 없는 맹신
4. 그런 판단 법칙은 성경에 없다
5. 신앙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

> **(직접 인용 없음)**
> 에드워즈는 “성경 어디에 이런 법칙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성경이 신앙 판단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전제에서 논증함

“신앙적인 일들에 대한 가장 높고 유일한 규범인 성경 어디에서 우리는 이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가?”

📜 3. 왜 속는가: "말씀은 완전하니 내 체험도 옳다"는 혼동

에드워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쉽게 속는 이유를 짚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순전하고 완전하다. 그러니 성경에서 비롯된 체험은 반드시 옳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생겼다고 해서 성경에서 '합당하게'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용하지 않고 바르게 적용해 참된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합당하게 나온 것입니다. 말씀의 완전함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체험은 옳다”까지입니다. “체험하는 순간 말씀이 떠올랐으니 그 감정은 옳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이 장 전체의 열쇠입니다.

1. 말씀의 완전함 ≠ 내 체험의 완전함
2. '말씀과 더불어' ≠ '말씀에서 합당하게'
3. 말씀과 일치하는 체험만 옳다
4. 바른 적용과 참된 열매가 기준
5. 떠오른 구절은 오용될 수 있다

> **베드로후서 3:16**
> 성경을 억지로 풀다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 말씀이 함께 있어도 적용이 그릇될 수 있음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마태복음 4:6**
> (다음 절의 장면) 사단이 시편을 인용하지만 적용이 거짓임 — 말씀의 '인용'과 '바른 적용'은

>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4. 사단도 성경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에드워즈는 묻습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속이려 잘못 적용하지도 못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사단은 사람 마음에 소리나 글자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강한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나 노래 가사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면 성경 문장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자는 약속된 기호 체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무 거룩해서 마귀가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틀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광야와 높은 산과 성전 꼭대기로 끌고 다닌 사단은 성경 구절을 이것저것 들어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한 본문을 악용할 수 있다면 다른 본문도, 가장 귀한 위로의 약속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면 수천 개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속은 죄인의 의심을 없애고 거짓 기쁨과 자신감을 굳혀 줄 약속들을 골라 모을 것입니다.

1. 소리·글자를 떠올리게 하는 건 사단에게 쉽다
2. 성경 문장도 예외가 아니다
3. 광야에서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4. 가장 귀한 위로의 약속도 악용 가능
5. 목적: 의심 제거, 거짓 확신 강화

> **마태복음 4:1-11**
> 광야·높은 산·성전 꼭대기 시험 — 사단이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사례
>
>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하시니 [5]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4:6

사단이 시편 말씀을 직접 인용해 그리스도를 유혹함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11-12

사단이 인용한 바로 그 '보호의 약속' — 위로의 약속도 악용될 수 있음

[11]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누가복음 4:9-11

같은 사건, 성전 꼭대기에서 성경을 들어 유혹함

[9]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 5. 거짓 교사와 사람의 마음도 같은 일을 한다

에드워즈는 증거를 넓힙니다. 사단의 도구인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거룩해서 손대지 못할 본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패도 똑같이 성경을 오용합니다. 사람 속의 죄는 그 아비인 마귀처럼 행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귀처럼 속이고, 속이기 위해 같은 수단을 씁니다. 그러므로 귀한 약속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듯 갑자기, 연달아 떠올라 높은 소망과 기쁨이 생겨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단의 장난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1. 거짓 교사도 성경을 무기로 쓴다
2. 종이 하는 일을 주인도 한다
3. 내 마음의 부패도 성경을 오용한다
4. 죄는 그 아비 마귀처럼 행한다
5. 떠오름은 출처를 가르는 척도가 아니다

> **베드로후서 3:16**
> 에드워즈가 직접 인용 — 성경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요한복음 8:44**
> '죄의 아비'라는 표현의 배경 — 마귀는 거짓의 아비, 사람 속 죄가 그를 닮음
>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 **예레미야 17:9**
> (참고, 직접 인용 아님) “마음이 기만적”이라는 에드워즈의 말과 같은 성경적 진단
>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 **고린도후서 11:13-14**

> 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람 속에 있는 죄는 그 죄의 아비와 같이 행한다.”

📜 6. 성령이 말씀으로 일으키신 감정이라도 — 돌밭의 기쁨

마지막 단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감정이 단지 말씀이 '생각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자극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나 사람의 부패가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향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예가 씨 뿌리는 비유의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도 말씀을 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쁨은 말씀을 들어서 생긴 것이고, 겉보기에는 좋은 땅의 기쁨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가 지나 결과가 드러나자 그 감정은 구원하는 믿음과 무관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진짜를 가르는 것은 시간과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1. 말씀 자체로 생긴 감정일 수도 있다
2. 성령의 영향일 수도 있다
3. 그래도 구원하는 믿음은 없을 수 있다
4. 돌밭도 말씀을 '큰 기쁨'으로 받았다
5. 시련 뒤의 결과가 정체를 드러낸다

> **마태복음 13:20-21**
> 돌밭: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 때 넘어짐 — 이 절의 핵심 예
>
>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마가복음 4:16-17

같은 비유 — 기쁨으로 받았으나 잠시 견딤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13

같은 비유 —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 13:23

좋은 땅 — 겉의 기쁨이 아니라 열매로 구별됨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무엇을 향해 강하게 끌리거나 물러서는 움직임으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은혜로운 감정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사람 안에 실제로 일으킨 감정입니다.

소극적 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데 쓸 수 '없는' 표시(제2부의 주제)입니다

근거를 따지지 않고 믿어 버리는 것으로, 여기서는 체험 방식만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악용(오용)함
구절 자체는 참이지만 엉뚱한 사람·상황에 적용해 거짓 결론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부패(마음의 부패)
죄 때문에 사람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성향입니다.

성령의 일반적 영향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시되 아직 새 생명을 주시지는 않은 영향으로, 돌밭의 기쁨이 이런 경우입니다.

구원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여 시련 속에서도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 구절이 떠오르며 생긴 감정은 그것만으로 진짜도, 가짜도 아니다.
- 말씀의 완전함은 '말씀과 일치하는 체험'을 보증할 뿐, '말씀이 떠오른 체험'을 보증하지 않는다.
- 사단도, 거짓 교사도, 내 부패한 마음도 성경을 떠올리게 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다.
- 성령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신 기쁨이라도 돌밭처럼 구원하는 믿음 없이 끝날 수 있다.

- 그러므로 감정의 근거가 진리 자체인지, 시련 뒤에도 열매가 남는지를 보아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7편 · 갑자기 떠오른 말씀과 넘치는 사랑 · 표지 5·6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